

광주시 '오락가락 조직개편안' 퇴짜

광주시가 민선7기 출범 5개월 만에 단행한 두번째 조직개편안이 오락가락하는 '갈지(之)자 행정'으로 결국 시의회에 상정도 못한 채 퇴짜를 맞았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중북기구 폐지와 통폐합 등을 통해 정원을 기존 3636명에서 3664명으로 28명 늘리고 4실 6과 3본부 82과이던 기구는 4실 7과 3본부 67과로 1과·5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선 7기 두번째 조직개편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함께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인권평화협력관실이 민주인권평화국으로 격상되고, 노동협력관과 평가담당관, 민주인권과, 남북교류협력과, 도시정보과, 문화기반조성과 등 5개과가 신설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1부 4과인 도시철도건설본부를 2부 6과로 늘려 관리

선임부서 변경안 놓고 갈팡질팡 의회 설명 따로, 상정 안건 따로

부와 안전관리실, 공사과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지난 6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었으나, 상정조차 못한 채 문진박대 당했다. "의회 경시"라는 원색적인 비판도 나왔다.

최근 불거진 항명 논란과 행정부시장의 명예퇴직 발언의 진원지였던 자치행정국 부서 서열, 즉 선임과(課)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시는 지난달 28일 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자치행정국의 선임과를 기존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총무과는 제2과로 내리는 개편안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이 직

접 상세히 설명했다.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골자로,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상황과 인사부서가 독립된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자치행정국의 선임부서 변경은 조직개편 실질책임자인 정종제 행정부시장의 "서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평소 소신과 기존 선임부서 직원들의 인사사고 등을 저버릴 수 없는 해당 부서장의 고뇌가 맞부딪히면서 항명 또는 가지 충돌로 비화된 문제로 시의회는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의 판단으로 부서 서열 갈등이 정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작 심의 안건으로 제출

된 개편안에는 기존대로 총무과가 선임, 자치행정과가 후순위로 배치돼 부서 변경이 없던 일이 됐다. 사전 설명회와 달리 뒤바뀐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의회 설명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소속 상임위원 행정자치위원회는 "집행부가 공공성의 영역에서 신뢰를 저버렸다"며 조직개편안의 의회 상정 자체를 보류했다.

김익주 위원장은 "개별 과 단위의 조직개편에 의회가 깊숙이 들여다보는 건 월권의 소지도 있지만 그 보다는 이번 문제는 법과 원칙, 무엇보다 집행부와 의회 간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시는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이전에 내부 교섭정리를 통해 의회 심의를 재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은홍 기자

여수 해상서 20대 여성 2명 숨진채 발견

9일 오전 8시22분께 여수시 중화동 한 조소소 앞 해상에서 A(23·여)씨 등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했다.

직원은 "해상에 사람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보인다"며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경비정 등을 동원해 시신을 수습했으며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이들의 신분을 확인했다.

해경은 CCTV와 목격자,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승합차가 가드레일 들이받아 1명 사망

9일 오전 6시 22분께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목포방향) 군산휴게소 인근에서 승합차 1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59) 씨가 숨지고 동승자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6명 가운데 5명은 태국 국적의 20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이 승합차가 갑자기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부산서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2명 검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이후 이를 조직에 전달한 송금책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9일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A(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월 30일부터 C씨 등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5차례에 걸쳐 만나 1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이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이후 피해금을 송금하면 건당 15만~2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발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만취 운전하다 접촉사고 낸 남성 2명 입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일 A(49)씨와 B(41)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25분께 부산진구의 한 성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티볼리 차량을 몰고가다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2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같은날 오후 11시 5분께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차량을 몰고가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50m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22)는 도주하는 차량을 뒤쫓아가 B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8%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60대 女 중학교 교문 앞서 여학생 흥기 위협

중학교 교문 앞에서 중학생을 흥기로 위협한 6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천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씨는 이날 오전 8시18분부터 25분까지 약 7분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중학교 교문 앞에서 이 학교 3학년 여학생 A양을 칼로 위협하며 "억울한 사정을 알려야 하니 선생님을 나오게 하라"고 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8시2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천씨를 붙잡았다. 피해 학생은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연기 요청 '거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광주시교육청에 감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유총 광주지회를 대표해 유치원 원장 5명은 7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장휘국 교육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감사 연기를 요청했다.

유치원 원장들은 현재 신입원생을 모집하는 시기에 감사가 이뤄져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져 원장과 교사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치원 원장들은 감사가 부담하다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감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일부 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감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단 광주시교육청은 감사를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되 유치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정된 행정지도·점검은 유예하기로 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감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불편할 수 있지만 감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감사를 마친 후 사안에 따라 고발이나 제도개선 등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강릉 열차사고 수습 9일 오후 코레일 관계자들이 전날 오전 7시33분에 고속열차가 탈선한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 KTX 강릉선 열차사고 현장에서 기중기로 객차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 올 겨울 첫 AI항원 검출, 전남도 방역 '비상'

전남지역에서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강진군 만덕간척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전남도가 차단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진군 만덕간척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종오리농가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일제 살포

하는 등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AI 발생 우려가 높은 종오리 농장 17개소에 10일부터 2019년 1월까지 방역초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24시간 근무자를 배치해 출입자를 통제하고 소독 후 농장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시군에 방역초소 설치 운영을 위해 예비비 2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오리 사육농장에는 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다시 살포한다.

도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지원해 지난 10월부터 2회 생석회를 일제 살포했으며, 오는 12일 3차 일제 살포에 나선다.

주요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영암호, 고천안 주변 도로 등에 군 제독 차량과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13일부터 20일까지 일제 소독을 한다.

또 철새 도래지에 통제초소 5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철새 예찰 감시요원 33명을 채용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